

국제화와 한국학도서 배포 사업

美 대학의 한국도서 구입에 길잡이 구실하는 「출판저널」

정진석

한국외국어대 교수·언론학

한국국제교류재단은 1982년부터 외국의 연구기관에 한국연구자료 배포사업을 벌여오고 있다. 해마다 외국의 여러 대학에 영문으로 요약한 도서목록을 보내어 그 가운데 필요로 하는 책을 신청하도록 한 다음에 이를 무상으로 보내는 것이다. 이리하여 이미 외국의 각 대학 도서관에는 교류재단이 기증한 도서가 조금씩 축적되고 있다.

필자는 최근에 미국의 몇개 대학의 한국학 연구소와 도서관을 둘러보면서 한국학 연구를 위해서 어떤 책이 필요하며, 또 어떤 경로를 통해 구입하는지를 대강 살펴볼 기회를 가졌다. 필자도 국제교류재단의 도서선정위원의 맡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느낀 점은 여러가지지만 그 가운데 중요한 사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서배포는 적은 돈으로 한국의 국제화를 달성하는 가장 확실한 성과를 거두는 사업이라는 사실이다. 인적 교류나 세미나 같은 것은 단기적으로는 성과도 있는듯이 보이지만 영속성이 없는데 비해서 도서배포 사업은 반영구적이면서 폭넓은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예전에는 해외의 한국학 연구자들이 부닥치는 가장 큰 애로가 한국학에 관련된 도서가 없다는 것이었다. 외국 대학의 도서관에는 중국과 일본에 관련된 도서에 비해 우리나라에 관한 것은 초라하고 빈약하여 가슴 아팠던 기억을 가진 사람이 많을 것이다. 가난했던 시절에 언제 우리가 외국에 도서를 보낼 생각을 할 수 있었겠는가. 내보낼 책도 많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도 경제의 발전, 국력의 신장, 학문 수준의 향상으로 외국 학자들의 한국학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국제교류재단이 외국 대학의 한국학연구소를 지원하고 석좌교수제를 마련하여 한국학을 강의하도록 돕는 것은 이를 반영한 사업인 것이다.

둘째, 미국에서 한국학 도서를 구입하는 가장 좋은 길잡이가 바로 「출판저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외국의 대학에서는 국내에서 쏟아져 나오는 수많은 책들에 대해 전반적인 정보를 얻기가 어렵다. 어떤 책이 중요한 것인지도 알 수 없다. 그러므로 신간 도서에 관한 정보가 있어야 하는데 가장 좋은 정보원이 바로 「출판저널」이라는 것이다.

「출판저널」은 국내의 출판계나 독자들을 위한 잡지일 뿐 아니라 우리의 국제화에 기여하는 중요한 매체임을 인식하고 이에 걸맞는 내용으로 편집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로는 OCLC(Online Computer Library Center)라는 미 전역에 걸친 도서목록의 전산화로 인한 정보와 자료의 공유였다. OCLC는 미국의 여러 대학 도서관이 소장한 책들을 전산화한 목록이다. 이 목록을 보고 어느 대학에 있는 도서든 상호 교환해서 볼 수 있으므로 도서관의 입장에서는 도서를 진열할 공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고, 이용자의 편에서는 한 곳에서 다른 대학이 소장한 책을 이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해외 한국학 지원사업은 여러 대학이 공유할 수 있는 목록의 전산화 같은 사업에도 눈을 돌릴 때가 된 것이다.

광복 후 국가적 대사업이었던 「한글 큰사전」을 발간할 돈이 없어서 미국 록펠러 재단의 원조를 받아야 했던 과거를 돌이켜 볼 때에, 우리의 도서를 해외의 이름 있는 대학에 무상으로 보낼 수 있는 사실은 가슴 뿌듯한 일이다. 국제교류재단의 도서배포 사업은 그런 의미에서 국제화의 착실한 실천 방안인 것이다.

표지 인터뷰	2	아득한 '백제말'의 거대광맥을 찾아 「백제어 연구」 외길인생의 도수회교수
초점	4	서비스 차별화로 승부거는 서점들
얼굴	5	경영권 무상양도한 보성사 이경훈사장
통계	6	뚜렷한 양적 성장 증명한 한해 '94출판통계, 다품종 소량생산의 추세
출판계 소식	7	창업 50년 맞은 출판사들의 행사계획
해외수필	8	“책을 평가하는 눈”
시론	10	화약고 이슬람, 국내연구는 침묵 - 공일주
초대인물	12	쿠랑의 「한국서지」 완역한 이희재교수
출판 화제	14	육체의 질병 다스리는 마음의 양식 '책' 정신질환에 유효한 독서치료 등장
책과 미술의 만남	16	책그림을 곁에 두는 선비의 염원 - 김영학 ② 「책거리」 민화
작가가 읽은 영화	17	오르테가 이 가세트가 읽은 '고야'
내가 읽은 원서	18	인간중심의 과학을 위하여 - 김용준 메리 미즐리의 「구원으로서의 과학」
출판 화제	20	지루한 영어, 웃으며 익힌다
서평	21	한국정치외교사학회 「갑오동학농민혁명의 쟁점」 - 박명규 이미원 「한국근대극 연구」 - 유민영
	22	이삼성 「한반도의 핵문제와 미국외교」 - 이서항 박진환 「쌀」 - 문헌팔
	23	김진석 「니체에서 세르까지」 - 김상환 반 퍼슨 「급변하는 흐름 속의 문화」 - 진교훈
종합 서평	24	시간의 회로를 찾는 일탈의 소설들 - 한원균 윤대영, 최윤, 이동하의 최근작에 대하여
이 책 그 사람	26	「영어병 10가지」 펴낸 박광희씨 「내 사랑엔 내가 없다」 펴낸 여난영씨
	27	「북미의 작은 거인…」 펴낸 김원호씨 「나무도 아닌 것이…」 펴낸 손종삼씨
세계의 출판	28	美현대소설의 개척자 크레인·외
	30	신간안내/40 어린이 책/42 새로운 책